

# 盧 대통령 “산업기술인력 양성할 터”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해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시중 과총연합회 회장 등 국회, 정부, 학계,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실천하고 싶다”며 “올해는 연구개발성과 평가법을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5년에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개혁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이공계 대학생의 숫자는 엄청 많지만 창조적 기술인력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난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도 일할 기술인력이 충분하냐고 물어

보면 기업인들이 ‘못쓰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과학기술 대한민국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사유”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학교 스스로의 협력없이는 또 하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학교가 하기 싫은 것을 정부가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며 “올해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넘어서자. 이공계 대학 교육 개혁만은 꼭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시중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올해 을유년은 과학기술부총리제도와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인 현장을 제정, 선포한 후 처음 맞는 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 시대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만이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2004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인 현장’ 낭독과 참여정부의



1



2



3

- 1 김시중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 2004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인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 3 윤덕용 KAIST 교수의 건배제의로 다같이 건배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들의 각오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됐다.

또, 2004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윤덕용 KAIST 교수와 2004년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한 이효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건배제의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건배제의를 앞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줬다”며 “이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과학기술인 모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박사도 “지난해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로의 격상과 과학기술 R&D 예산을 늘려줘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2005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과학기술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 후에는 과학기술인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조영화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 회장은 “기쁜 행사다. 대통령께서 말한대로 올해는 과학기술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대덕연구단지도 어깨에 중요한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잘 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과학기술인들의 행사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직접 나와 격려해주고 과학기술 성과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결호 환경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대표, 정부출연기관장,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리\_ 이재성 기자 jslee@kofst.or.kr

## | 노무현 대통령 인사말(전문) |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출발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희망도 말하고 많은 걱정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 동안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은 정말 잘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참 잘해온 한해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2천5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는데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잘 한 것도 있지만 바탕에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은 그 동안 잘 해 왔고 현재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올해 발표된 연구성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눈을 부릅뜨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도 그렇고, 와이브로라고 하는 휴대 인터넷 기술도 그렇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등해서 조금 전에 영상물에 전부 소개됐던 여러 기술들이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의 과학기술, 나아가서는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우수한 유망한 기술들 아닌가, 이렇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좀더 탄탄한 기반기술과 혁신기술들을 확보하고 기초기술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다잡고 계십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곧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대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 가면 그 분야에서도 내놓을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선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부처로 승격하고 혁신본부가 신설되고 연구원들의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고, 또 올해에는 미흡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



하면 훨씬 더 높은 연구개발비의 확대라든지, 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대덕연구단지와 또 조건을 갖춘 과학기술특구에 관한 법도 통과되고, 또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고 있는 과학기술 클러스터 정책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가 시간이 갈수록 수준이 아주 높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리고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검토한 실현성이 높은 보고서다라는 느낌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보고서의 수준만큼 빠르게 발전한다면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제 어떤든 정부에서 투입하는 만큼은 성과를 꼭 챙겨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가는 이런 연구개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했으면 하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몫이 크지만 우리 과학기술계가 중소기업처럼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이제는 중소기업의 과학기술력,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새해에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손잡고 한번 같이 해 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공계 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또 그밖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장관도 좀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장관 임명도 이공계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발언권, 사회적 영향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민은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는 이공계 학생 숫자가 엄청 많은데, 기술한국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은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단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충분합니까 물으면 기업인들은 다 '뭇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해 가는데 대단히 심각한 장애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대학교에 종사하고 계시는 과학기술인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올해에는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소위 선진 과학기술 한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과학기술산업

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교 스스로의 협력이 없이는 이것은 또 하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하기 싫은 것을 정부가 추진하면 아주 대단히 시끄러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 해 동안 내내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은 단순한 이론적인 싸움을 벗어나서 나중에는 인신공격이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올해는 어떻든 이 문제를 넘어서자, 넘어서서 이공계 대학교육만은 꼭 좀 개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따라서 선진한국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한국의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 주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항상 새로운 문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만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힘써 창조한 과학기술 문명이 전쟁에는 적어도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또한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술을 직접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몫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점에 관해 또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서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쳐야 되는데 한마디 더 남았습니다. 새해 저와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힘껏 같이 좀 도와주시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